

### 작고 쉬운 것에서 시작

레위기 19:13-18, 마가복음 12:28-34

최정웅 목사님

최형란 집사 가족, 김준일 집사 가족, 최봉식 장로 가족, 허지선 집사 가족이 RCA에 참여했다. 최형란 집사님 가족은 7시간 이상 운전해서 왔다고 하고, 김준일 집사님 가족은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모두 평안했고, 교회를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우리 교우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운동 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한다. 마가복음 12장을 묵상하는데, 이 민족이 매우 어렵다. 대통령도 매우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촛불을 켜고, 또 옹호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정말 새벽에, 예배 때마다, 개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민족에게 상처가 없게 해 달라고, 국가에 안정과 평화를 달라고, 이것이 발판이 되고 훌륭한 나라,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사건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 날을 대논쟁의 날이라고 한다.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베다니로 가서 쉬셨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오시자마자 논쟁을 지도자들과 계속하셨다. 거기서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잘 붙잡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대부분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에 빠져 있고, 수험생들도 경제인들도,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도 그렇다.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다가, 이것을 지도해주어야 할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 현상이 전부 중단되어 있다.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다 멈춰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미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래가 보장되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란다. 우리의 과거는 복음 안에서 전부 발판이다.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미래는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가장 작고 쉬운 것부터 변화시키도록 시작하자.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두 가지로 당연히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 1. 이미 와 있는 당연 필연 절대를 누려라.

첫 번째는, 이미 와 있는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누리자는 것이다.

(1) 정말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 이미 붙잡은 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박살내셨다.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셨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열두 가지 재앙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한다. 이 복음 가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칼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섯 가지 교리를 말했는데, 그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음 아니면 열두 가지 재앙을 이길 수 없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다. 모든 참사랑 가족들은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고 분명히 가지시기 바란다.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온다. 문제 없는 사람이 된다.

(2) 두 번째로, 복음의 절대성을 누리시기 바란다. 복음 가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모든 미래는 전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가서 열심히 하면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땅 가기 전에 이미 가난한 땅 정복할 것을 약속하셨다. 여호수아 1:3을 보면,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지 않고,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것이다.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요한복음 19:30에서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다. 그 깃발을 들고 가서 쫓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미래다. 빌립보서 3:20에 말씀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 비록 문제가 많고 여러 혼란에 빠져 있는

한국에 우리가 살지만, 사실 우리의 본 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받아 놓은 것이다. 이번에 미국에 가 보니까, 별 것도 아니겠지만, 넓기는 정말 넓더라. 캘리포니아만 해도 남한 땅의 네 배가 넘는 땅이었다. 캘리포니아 들에서만 농사를 제대로 지으면 미국 3억 인구가 7년을 먹고도 남는다고 한다. 그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좀 떼어서 우리 좀 붙여주지 싶은데 자기들만 가지고. (웃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불법체류자는 300만 명을 쫓아내겠다 하니까 영주권,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 전전공공하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난리인데, 미국 시민권 얻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어놓은 것이다. 요한복음 14:1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예비하러 가는데, 완료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주님이 이 땅에서 직업이 목수였다. 그 주님이 우리 있을 곳을 다 준비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을 약속하셨다. 세상에서 승리할 것, 천국 보좌에 앉을 것까지 주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마태복음 24:14이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 이 미래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음을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미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이 절대성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고, 이번 주간에도 새 힘 얻으시기를 축복한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잊지 마라.

(3) 세 번째는 복음의 당연성이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이미 끝났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다만 그 사이에 있는 오늘이 문제인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오늘의 문제도 내가 책임져주마,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면서 해결해 주겠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갔지만 믿음이 생긴 이후로는 염려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으니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가난한 땅 정복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흥해는 하나님이 갈라버리시는 것이다(출14:21). 이스라엘이 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셨다. 여러분 앞에 놓인 흥해가 오늘 믿음으로 갈라지게 되기를 축복한다. 요단 이 갈라져야만 하게 되어 있다(수3:15). 여기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는다. 이게 믿음이다. 제발 믿음을 가져라. 제대로 정체성을 붙잡아라.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모든 염려를 버리라고 했다. 베드로전서 5:7에,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 버려라. 네가 가지고 걱정할 게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오직 성령충만을 받으라. 사도행전 1:8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증거가 생긴다고 했다. 그 안에서 당연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나를 보면 어떤가? 믿음 떨어지는가? (웃음)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사랑스럽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야 한다. 보면 낙심되고 실망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이 우리의 것이다.

#### 2. 나의 오늘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고 실천하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예비하신 당연한 것이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 절대적인 것이 있다. 나의 오늘 속에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서 실천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제목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라고, 고민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작은 것을 예비하셨다.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모세가, "저는 못 합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또 우리 백성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저는 도저히 못 합니다. 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도력도 없습니다. 이 백성이 내 말을 들겠습니까. 완전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애굽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족하다." 그것을 던져 보라고 해서 던졌더니 구렁이가 되었다. 자기를 물려고 달려든다. "두려워하지 말고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난다. 모가지를 꼭 잡아야 한다. 꼬리를 잡으면 당장 물어 버린다.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다. 반대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하다. 꼬리를 잡았더니 갑자기 뱀이 막대기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너 봤느냐. 이 막대기만 가지면 충분하다." 그래도 못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폼에 넣어보라고 하셨다. 넣었다 빼 보니까 문둥병이 생겼다. "모세야, 두려워말고 다시 손을 집어넣어 봐라." 다시 넣었다가 빼어봤더니 정상이 되

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당연한 것, 현장에 있는 필요한 것, 반드시 되어질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자.

(1) 제일 먼저 해야 할 당연한 것이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하라고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이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책임이 있다. 이사야 43:7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은 그래서 원래부터 예배하는 존재다.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사야 43:21에 보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요하면 기도하고, 걱정되면 찬송하라. 시간이 되면 말씀을 보라. 세 가지만 해 보라.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 하시기 바란다. 요한복음 4:24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다. 당연한 것이 이 부분이다. 모든 성도들이 당연한 실천을 예배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예배를 제대로 했는가 생각해 보라. 어제 우리는 작은 음악회를 했다. 어떤 학생은 자기 신앙고백을 했다. 내 믿음 약할 때 주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했다. 이게 나의 마음을 울렸다. ‘주여, 저 사랑하는 딸에게 함께 하사 믿음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던데, 참 귀한 고백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란다.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모든 것은 해결된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신다. 귀신은 망할 것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승리할 것을 가르치신다. 귀신은 멸망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나.

(2) 두 번째로,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신다. 성령인도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현장에 필요한지가 다 보이게 된다. 예배당을 돌아보면서 ‘왜 나에게 자리를 하나 안 주느냐’ 하면 안 된다. ‘아,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구나. 저것은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공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가 보면 문명의 수준을 보게 된다. 쓰레기통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발로 밟아서 정리해 놓는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백인 한 명이 들어오다가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더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어서 행복해졌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손 다시 씻으면 된다. 여러분 중에 나를 보고 ‘더러운 손 절대 안 만지겠다’ 하는 분이 없지 않나. (웃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스크린이 희미한데, 그 필요를 아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꼭 교회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다. 누가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 음향시설 잘 안 되어 있으면, 나라면 가서 직접 바꿔놓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37년을 외쳤는데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면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일 것이다. 여러분이 잘못 배운 것일 것이다. 나는 어리석게 가르쳤어도 여러분은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판단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부흥시킬 수 있는지,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말고 나는 제대로 했는지 생각하라. 그것이 ‘필요’를 아는 사람이다. 31절에 뭐라고 했는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복음 없어서 무너져 가는 영혼 살리는 것이 최고 사랑이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하면서 3주간 계속 영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중요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요, 주는 것이다. 전도운동이 최고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로 사람 끌어모으고 세력 키우는 것이 전도의 동기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랑하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을까, 복음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생애 동안 한 명은 살려야지. 백 명은 살려야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되어 있다.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영혼을 살리고 희망을 주어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에 되었으면 좋겠다. 당연한 것을 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두고 자기 목사와 의

논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중직자들은 민수기 3장을 다시 보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반드시 읽어보라.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성경을 보고 알았다. 성경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다. 그러면 알게 된다.

(3) 무엇까지 보게 되는가? 절대적인 응답까지 오게 된다. 당연한 것, 필요한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게 34절에 나온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서 멀지 않도다.” 현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해에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예수께서 황제가 되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니까 악령의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악한 세력이 물러가니까 평화가 온다. 파스 로마나는 로마가 멸망하니까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와 증거가 오게 될 것이다. 현상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바란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니다. 작은 것,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했다. 이것이 응답의 시작이다. 그래서 참사랑 가족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당연, 필연, 절대를 시작하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뉴욕 시에서 범죄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수십 년 전에 뉴욕을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었다. 벽만 있으면 다 낙서가 되어 있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가득하며 맨해튼은 음란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치참할 정도였다. 그런데 검사 출신의 어떤 인물이 뉴욕 시장이 되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깨진 유리창부터 바꿔 낀 것이다. 모든 사람 동원해서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다. 음란 소굴이 되어 있었던 42번가를 폐쇄했다. 지금 뉴욕을 보라. 한 사람만 제대로 정신을 차려도 된다. 우리가 3.1절 행사 때 모였다가 모든 쓰레기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광장을 청소해 놓았다.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 이런 흐름이 요즘 촛불집회 때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다. 앞서 이야기한 공예배 회복 실천은 어렵지 않다.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한다. 나는 예배를 성공하겠다 하고, 거기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 너무 은혜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50년을 가르친 것이다. 그런데도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는 제일 역사가 깊은 교회다. 무엇이 모델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하기로 한다.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은 실천이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청소가, 요셉이 시작했던 노예생활이 될 수 있다. 요셉이 가는 곳에 그 집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지 않나. 우리 집사람이 젊을 때 이야기했다. 당신 설교를 듣다 보면 가슴에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안 따라오더라. (웃음) 못됐다 싶었다. 요즘 배가 더 나와서 옆드리기 힘들다. 혼자서 계속 먹으니까 살이 찌는 것 같다. (웃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힘이 나는가?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 우리는 복음만으로 통하는 사랑의 사이다.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시기를 축복한다. 말은 일에 조금 헌신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애가 집안일을 하는 종으로서 문둥병에 걸린 나이만 장군을 변화시켰다. 작고 쉬운 헌신이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작고 쉬운 것을 찾아내시기 바란다. 이것을 가지고 2017년을 준비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청지기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어디에 서도 우리는 행복한 자, 복음으로 행복한 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자리를 비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좋은 나이 들어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교단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성탄절, 50주년 기념행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로 좀 우리에게 달라’ 하고 연락이 올 만큼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